



한국양회공업협회

명호근 회장 취임

명호근 쌍용양회공업(주) 대표이사 사장이 1월 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한국양회공업협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명호근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도래에 따른 국내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업계 공동선을 추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새로이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천년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동양메이저(주)

동양메이저(주)로 제2창업

6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동양메이저(주)로 변경하고 제2창업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국

내의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e-비즈니스 투자 사업을 총괄해 갈 투자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손익중심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노영인 사장은 주주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을 통해 “동양메이저(주)는 외형 보다는 고수익성 사업구조로 재편되고, 각 부문별 대표이사가 경영성과를 책임지는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게 된다”며 회사의 변신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건재 · 시멘트사업본부 워크숍 개최



시멘트 건재사업본부와 시멘트사업본부가 각각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0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수립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 각 본부 참석자들은 영업효율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건재사업본부는 파일, 몰탈, 특수제품의 제품 특성 분석 및 영업조직간의 효율적인 연계영업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시멘트사업본부는 영업팀별 전략 수립 이외에 영업사원들이 시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세계 시멘트 수급 현황 및 시멘트 수출 관련 업무 소개, 시멘트 및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교육, e-비즈니스 체험시간 등을 함께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삼척공장 무재해 2배 달성

삼척공장은 2월 18일자로 공장 가동 이래 최초로 무재해 2배를 달성하여 산업안전공단 춘천지도원으로 부터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시멘트 업종에서의 무재해 2배는 업종의 특수성과 높은 작업강도로 인해 그 의미가 전자업종이나 타 제조업과는 달리 매우 어렵다. 실제로 동종업계에서는 무재해 1배(1백20만 시간)를 달성한 사업장마저 매우 드문 형편이어서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다. 무재해 2배 달성을 계기로 삼척공장은 '재해 없는 안전한 공장'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신감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양회공업(주)

성곡선생 25주기 맞아 국민대에 동상 건립

성곡 김성곤 선생의 25주기를 추모하는 동상 제

막식이 2월 22일 국민대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이 동상은 국민대학교 총동문회가 지난 '98년 12월 「성곡선생 동상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대 출신 5만여 동문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건립한 것이다. 이날 제막식에서 김석원 회장은 “오늘의 동상 제막이 있기까지 각별한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 동문님들과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성곡선생의 뜻을 받아 국민대학교가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38주년 맞아

5월 14일로 창립 38주년을 맞아 본사 및 사업장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영월공장 생산부 최명일 부장, 자금팀 신인호 차장, 영업관리팀 조현군차장에게 쌍용대상을 수여했다. 명호근 사장은 기념사에서 “IMF 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사업이 본격화되면 국내 시멘트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 내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동해공장 환경대상 자원재활용부문 대상 수상

동해공장이 환경부와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환경관리공단이 후원하는 제8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에서 자원재활용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자원재활용 대상 부문에는 총 11개 업체가 응모했으며 동해공

장과 삼양사가 공동으로 이 상을 수상하였다. 동해 공장은 그 동안 유연탄 및 무연탄 석탄회를 비롯 페타이어, WRF, 폐차파쇄 잔재물 등 연료 대체용 물질과 각종 부원료를 대체하기 위해 산업폐기물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해 왔다.



동해 장학재단, 124명에게 장학금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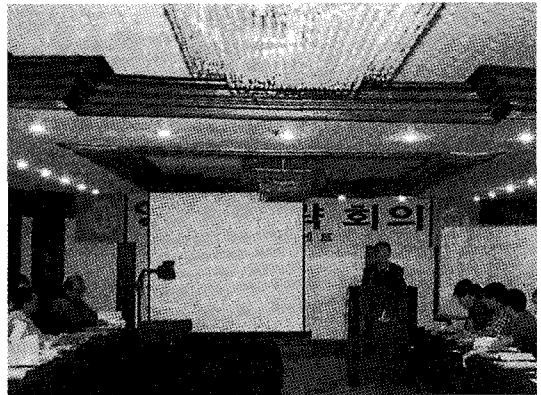
쌍용동해장학재단은 지난 2월 25일 쌍용양회 동해공장 무릉관에서 2000년도 제1기 쌍용동해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홍명식 이사장, 김병기 공장장, 최준표 감사, 홍성환 이사, 홍희표 이사, 채영주 이사, 라성학 이사 및 관내 각급 학교장과 학부모등 200명이 참가했으며 124명의 학생들에게 총 3,5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쌍용동해장학재단은 동해공장이 있는 강원도 동해시의 발전과 유능한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총 6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93년 12월에 설립된 재단이다. 쌍용동해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총 1,369명의 꿈나무들에게 4억 1,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동해시 종합예술제 등에도 총 1,7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일시멘트공업(주)

전사 영업 전략회의

전사 영업부문의 전략회의가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진행됐다. IMF외환위기 이후 장기화된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더욱 악화된 영업환경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2000년도의 영업방향을 모색하는 등 경쟁력강화와 영업전략의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전사 영업부문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영업 전략회의는 2000년도의 시장전망 및 영업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고객만족을 통한 영업성공 사례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2000년 고객 초대 행사

2000년도 고객 초대행사가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의 양일간 단양공장에서 진행되었다. 고객과 회사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객만족 경영”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시멘트 관련 13개 사업장에서 총 19명의 고객이 참석하여 기술세미나를 갖는 한편, 역사관과 단양공장 연구개발실 및 시멘트 제조 현장등을 견학하였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고객 초대행사를 더욱 활성화시켜 고객에게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시멘트와 시멘트 2차제품의 특성 및 품질관련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세아시멘트공업(주)

VISION21 실행전략 완성



지난 '9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기획팀을 주축으로 한국능률협회 건설팅의 자문을 받아 밀레니엄 비전을 위한 VISION21 TFT 활동을 하였다. TFT 활동은 새천년 당사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과 전사 워크샵, 전사적 VISION21 선포식 등 전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으며 비전 및

전략 추진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각 부문과 팀에 배포하였다. VISION 21은 기업비전인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회사”와 경영이념인 “진취적 행동, 창조적 사고, 지식 축적 개발”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성신양회공업(주)

2000년도 임금협상 무교섭 협정 체결

지난 6월 7일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 후 처음으로 임금인상에 관한 무교섭 위임장을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21세기 화해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기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날 노사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경영방침인 흑자 경영 달성을 위하여 노사가 함께 생산성 향상에 진력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당사는 IMF 체제 이후 건설 경기의 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이겨낸 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흑자 경영 실현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하였다.





고려시멘트제조(주)

2000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

2000년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이 5월 1일자로 실시되었다. 금번에 실시된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은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속에서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영업정보력의 증대와 직무이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회사규정을 철저히 준수케 함으로서 해이된 근무기강의 확립, 삼척공장 임차가동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의 잠재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순환 배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고려사원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지리산 한국통신수련관에서 고려사원 한마음수련대회가 펼쳐졌다. 회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참된 주인으로서의 근로자상을 정립하자는 결의를 다지며 본사, 장성공장, 광양공장, 삼척공장에서 150여명의 사원들이

참여하여 1박 2일동안 진지하고 알차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함께 하였다. 금번 수련회는 회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심신수련을 통해 사원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에 기여하며,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을 깨고 「바뀌어야 산다·우리는 해낼수 있다」는 의식개혁을 통해 진정한 고려맨으로 거듭나게 하는 전기를 마련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되었는데 특히 지난 삼척공장 가동과 함께 새로운 고려가족이 된 삼척공장 사원들이 처음으로 고려가족 전체 행사에 참가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출범 기념 축하연



3월 2일 현대호텔 6층 다이아몬드룸에서 정몽원 회장, Philippe Autie 프랑스 한국대사관 참사, Jean Desazers De Mongaihard 라파즈 아시아-아프리카 지역담당 사장, 문정식 사장, 김진환 강릉상공회의소 소장 등 내외귀빈 200여명을 모시고 라파

업계동정

즈한라시멘트(주) 출범 기념 축하연을 개최했다. Jean Desazers De Mongaihard 사장은 인사말에서 “라파즈사는 최선을 다해 라파즈한라시멘트(주)를 더 가치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당사는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업적향상, 주주의 가치 극대화, 고객만족도 향상 및 사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재해 영향평가 설명회 실시

지난 3월 10일 옥계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만 강릉시 환경과장 및 관련기관 관계자와 옥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재해 영향평가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개발후 레저 및 위탁시설 계획여부,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 혜택 및 지역민 채용, 송이버섯 식생연구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반영, 옥계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경영자교육 실시

5월 4일 옥계공장 본관 3층 교육장에서 팀장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Ver2000 해설에 대한 경영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회사가 구축하고 있는 국제 규격인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한 국제적 품질경영을 이해하고 전환시스템의 정착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자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면서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노희창 전문위원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한국시멘트(주)

'HKC 희망 21' 출발식



지난 '99년 12월 28일 '희망 새천년 준비위원회'를 발족, 한달여 동안 새천년 일등회사를 이룩하고자, 행동윤리 및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을 준비하여 2000년 1월 22일 본사 문화센터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HKC 희망 21' 출발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전 임직원은 '새천년 새출발 새한국'이라는 부제와 같이 모두의 의식개혁을 통한 새로운 회사로 변화·발전하여, 일등회사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다짐하였다.

